

도시주변 면단위 행정구역의 지역 변화

- 전라북도 조촌면을 사례로 -

조 성 옥*

Regional Transformation in 'Myeon' Administrative District adjacent to Urban Area

Sung-Wook Cho*

요약 : 행정구역으로서 '면(面)'은 자연적인 마을 단위와 가장 가까이에 접하고 있는 인위적인 행정구역이다. 시와 군단위의 행정구역명이 역사성이나 인식 측면에서 훨씬 광범위하지만, 면단위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한정되는 인식규모가 매우 작은 지리적 단위(범위)이며, 존속여부나 행정구역명의 변화가 가장 심한 행정구역 단위이다. 면단위에서의 지역 중심지가 확립된 것은 1917년 면사무소의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 조촌면(동) 지역을 사례로 면단위 지역에서의 지리적 범위 변화와 지명(면명)의 변화 유형 및 의미하는 지역과 관계된 정체성, 면단위 지역규모에서 나타나는 지역 중심지의 형성과 그 요인을 살펴봤다. 조촌면의 지역 변화는 첫째, 전주시와 근접한 관계로 전주시의 팽창에 따른 편입 및 통합이 지리적 범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촌면은 지명(면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지명이 의미하는 지리적 범위는 달라졌다. 셋째, 신작로와 철도역의 개설, 일본인의 농장 개설, 면사무소의 설치, 정기시장 개장의 과정을 통해서 면의 중심지가 형성되었다.

주요어 : 면단위 행정구역, 지리적 범위 변화, 면명의 변화 유형, 중심지 형성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regional transformation in the lowest level administration district(Myeon). The major factor of regional transformation is the change of geographical range, identity of place name, the formation and change of regional center. Jo-Chon Myeon as a sample study region is located in near Jeon-Ju city. The large and dynamic city in neighbor is strong influenced to the change of geographical range. But the place name has identity in spite of the regional change. The formation of new regional center is influenced by new road, rail road and station, japanese large farm, administration office in this district.

Key Words : Myeon(lowest level administration district), change of geographical range, change type of place name, formation of regional center

1. 서론

인간이 1차적으로 인식하는 지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마을이다. 그러나 자연마을은 인위적인 행정구역인 '면' 또는 '동'이라는 틀 내에서 존재한다. 물론 그 틀은 시나 군 그리고 도나 광역시로 확대되는 계층성을 지닌다. 자연마을 이외의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인식의 기준이 되고, 지역에 관한 지식 범주화의 기준이 되며,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여 그 속에 소속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조성옥, 2004, 140).

특히 인위적 행정구역의 최하단에 존재하는 동이나 면은 인간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행정구역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해

삶이 이루어져 중심성이 희박한 도시의 '동'보다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강한 농촌지역의 '면'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의미있는 지역규모이다. 따라서 면단위 행정구역의 변화는 지역인식의 변화와 함께, 그 지역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지역 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단순한 인위적인 지역구분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면'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1차적인 지역 구분이면서, 지역을 매개로 하는 상호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지역 단위로서 의미를 지닌다. 최근 행정구역의 근간은 1914년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에 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근간이 90여년 동안 유지되면서 지역정체성이 형성되고, 상호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도나 시군 등의 지역 규모에서는 많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전공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chossww@hanmail.net)

은 연구가 축적 되었지만, 면이나 동단위의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의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면’은 지방행정구역의 정형화된 최하단 행정구역으로서, 지역에 기반하면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는 지역규모이다. 소규모 지역단위 특히 사회적으로 형성된 행정구역으로서 면단위 지역 규모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지역이 만나는 점점에 해당하며, 유동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면’ 단위 규모의 지역연구는 인간과 지역의 관계를 연구하는 지리학에서 기초적인 연구단위의 하나이며, 상향적 지역 이해와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한 지역규모이다.

본 연구에서는 1914년을 기점으로 전라북도 전주군의 20개면 중의 하나였던 조촌면(助村面)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면단위 행정 구역의 변화요인 및 변화과정, 지리적 범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명으로서 면명(面名)의 정체성 변화, 면단위 행정구역의 정착화와 그에 따른 지역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면단위 행정구역에서의 지역 중심지는 폐현 등에 따른 기존 중심지가 존재했던 지역과 1910년대 면단위 행정구역의 정착화 과정에서 새롭게 중심지가 형성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본 사례 지역은 뚜렷한 지역 중심지가 없었던 면규모 지역에서 인위적인 행정구역의 설정에 따라 지역 중심지가 새롭게 형성되는 요인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이다.

조촌면 지역은 1914년 당시 전주군의 20개면 중의 하나였으나, 1935년 전주부와 완주군의 분리로 완주군 조촌면이 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 조촌동과 동산동으로 분리되어 전주시에 통합되었다. 연구 대상 지역으로서 조촌면은 1914년, 1957년, 1987년, 1994년 기준에 따라 의미하는 지리적 범위가 다르다. 1987년 이후 2개의 동으로 분동 되었지만, 연구 대상으로서의 조촌면 지역을 1987년 이전의 조촌면(읍)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행정구역으로서 ‘면’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사례 지역의 상위 행정단위인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행정구역 변화를 살펴본다. 조촌면은 이 지역 단위에서 비교적 중요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1914년, 1957년, 1987년, 1994년). 그리고 조촌면의 지역 변화에서는 1914년부터 1994년까지의 조촌이라는 지

명이 의미하는 지역의 지리적 범위의 변화과정과 지명(면명)의 변화 유형 및 지명으로서의 정체성, 이 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한 동산촌(東山村)의 중심지 정착과정과 요인을 살펴본다.

2. 행정구역으로서 ‘면(面)’의 형성과정

우리나라에서 면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조선초기부터이다. ‘면’과 ‘리’라는 용어는 ‘고려사’에도 등장하지만, 면리제가 법전으로 구체화된 것은 조선초의 경국대전부터이다(임석희, 1995, 66). 경국대전의 규정에는 경외(京外)는 5호를 1통, 5통을 1리로 하고 몇 개의 리를 합쳐 면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권 2, 호전, 호적조). 그러나 이러한 면리제는 규정으로는 존재했지만, 전국 말단행정 기구로 정착화 된 것은 조선 후기(17세기 이후) 때이며(이존희, 1990, 208), 실질적인 존재로 나타난 것은 1910년대이다.

고려말과 조선초에 속현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에 속현의 주현화, 소속의 이동, 병합, 직촌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조선 초기의 군현의 관내는 읍치(읍내, 里坊洞으로 편성), 직촌(直村, 수령의 직접 통치하에 있는 주읍의 직할촌; 면과 리로 편성), 임내(任內, 주읍 관내에서 독자적인 구역을 보유하면서 그 곳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장리 등에 의해서 주읍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속현과 향소부곡으로 편성)가 병렬해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목군현의 밑에 읍치(읍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과 같이 몇 개의 방면으로 면을 구분하고, 면 밑에 리촌동을 두었다. 그리고 직촌(직할촌)은 자연촌(리, 동)과 지역촌(연합촌, 면의 행정구역으로 발전)으로 구별되는데, 고려말과 조선 초에는 면(面), 방(坊), 리(里), 사(社), 동(洞), 촌(村)의 용어가 명확한 구분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이 중 혁파의 대상이었던 임내는 속현, 향, 소, 부곡, 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직촌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직촌은 면리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임내의 직촌화는 면리제의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전라도 지방은 다른 지역보다 빨리 조선 초기에 임내가 모두 혁파되었다(이수건, 1989, 72). 그러나 조선시대에 면단위 행정 구역은 행정체제로서 분명하게 정착하지는 못했다.

표 1. 전국 행정구역 단위 (2000년 기준)

| 행정단위 | 사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동 |
|------|----|-----|----|----|-------|-------|-------|
| 개 수 | 16 | 72 | 91 | 88 | 198 | 1,221 | 2,085 |
| | | 251 | | | 3,504 | | |

자료: 행정자치부, 2001, 통계연보.

이 후 면단위 행정 구역은 1906년의 ‘지방구역과 명칭에 관한 건’, 1910년의 ‘면내 동리촌의 폐지분합과 그 명칭 및 경계변경에 관한 건’(1910.4.12), 1910년의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와 그에 따른 ‘면에 관한 규정’(1910.10.1) 등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면장은 군수의 보조기관으로서 면행정을 집행했지만, 직제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각자 자택에서 사무를 집행해 왔다. 1914년 4월 1일에는 지방관제의 개정으로 군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져, 1910년 317군이 1914년에는 220군으로 줄어들었고, 면은 4,322개면이 2,521면으로 조정되었다(김보현·김용재, 1983, 168). 이 당시 군 구역개편의 기준은 면적 약 40방리, 인구 약 1만 명이었으며, 면 구역개편의 기준은 면적 약 4방리, 호수 약 80호를 기준으로 했다.

1917년에는 ‘면제’(1917. 6. 9)와 그에 따른 ‘면제 시행규칙’(1917.6.9) 등을 통하여 면의 명칭을 통일하고 면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법정 구역화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일선행정조직으로 만들었다(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22).¹⁾ 이 시기에 면장은 독립된 면사무소에서 직무를 집행하며 관입관(3급, 하급관리)의 신분보장을 받았다(충청북도, 1992, 97). 이와 같이 일제는 1910년부터 1917년까지 면제도의 정착화에 주력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1910년에서 1917년 사이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지방통제기관으로서의 면제도의 효용성이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이다(김

운태, 1998, 186).

또한 면을 보통면과 지정면으로 구분하고, 총 2,521면 중 23개면을 지정면으로 지정하였다(손정목, 1996, 265). 지정면은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적인 면모를 지닌 지역으로, 일본인이 면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러한 지정면은 1931년 ‘읍면제’(1931. 4.1)의 실시와 함께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 후 1948년 남한에는 1,456면이 있었으나, 읍으로의 승격과 동으로의 변환으로 1995년에는 1,241면, 2000년에는 1,221면으로 축소경향에 있다(표 1).

이와 같이 ‘면’이라는 행정구역 또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서 정착된 것은, 1917년 면을 법정 구역화하고 면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부터이다. 면은 시 지역으로의 편입과 읍으로의 승격 등으로 계속적으로 감소 경향에 있다.

3. 면단위 행정구역으로서 조촌면의 변용 과정

1) 전라북도의 행정구역 변화

조선 초기(1413년, 태종 13년, 8도제)에 형성된 행정구역인 ‘전라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895년 행정구역 개편(23부제)에 의해서 전라도 지역이 전주부, 나주부, 남원부, 제주부의 4개 지역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중 전라북도 지역은 대부분

표 2. 1895년 전라북도 지역의 행정구역

| 전국(23부) | 해당 군 지역 |
|-----------|--|
| 전주부 (20군) | (현재 전북 지역) 전주, 여산, 고산, 임피, 함열 , 옥구, 용안 , 익산, 부안, 만경 , 김제, 금구, 고부, 흥덕 , 정읍, 태인 , 고창, 무장 |
| | (현재 전남 지역) 장성, 영광 |
| 남원부 (15군) | (현재 전북 지역) 남원, 윤봉 , 임실, 진안, 순창, 용담 , 무주, 장수 |
| | (현재 전남 지역) 구례, 곡성, 순천, 광양, 담양, 옥과, 창평 |

* 굵은 부분은 1914년 통폐합된 지역임. 출처 : 정시채, 1986, 374.

도시주변 면단위 행정구역의 지역 변화

전주부와 남원부에 속했다(표 2). 그 다음해인 1896년 행정구역 개편(13도제)에 의하여 전라도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나누어졌다(전라북도, 1989, 803).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적으로 332개에 달하던 군이 2/3 수준인 220개로 통폐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면단위의 통폐합도 이루어졌다. 이 때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임피군(옥구군으로 편입), 고산군(전주군), 진산군(금산군)²⁾, 용담군(진안군), 운봉군(남원군), 만경군과 금구군(김제군), 무장군과 흥덕군(고창군), 태인군과 고부군(정읍군), 함열군과 용안군 그리고 여산군(익산군) 등 14개 군이 통폐합되었다. 이 때 통폐합된 군을 구읍(舊邑)이라 하는데, 현재는 대부분 면(面)으로 지명이 남아있

다(표 3). 15개 부군으로 구성되었던 전라북도는 1935년 전주부와 완주군이 분리되고, 1963년에는 금산군이 충남으로 편입되었으며(최병운, 1989, 33), 1995년 도농통합에 의해서 현재는 14개 시군(6개 시, 8개군)으로 구성되었다.

2) 전주 지역(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변화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주군은 고산군을 통합하여(1914. 3. 1),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이 '전주군'지역으로 통합되었다. 이와 함께 전주군과 고산군내에 존재하던 32개면이 20개면으로 통폐합되었다(표 4). 전주군에는 20개 면(面)의 하부 단위로 리(里)와 현재 시내의 동(洞)에 해당하

표 3. 1914년 전라북도 행정구역(부군면)

| 부군명 (소속 동/면) | 소속 지역 | 2000년 현재 |
|-----------------|--|-------------|
| 1. 군산부(22) | 町 13개, 通 3개, 洞 6개 | 군산시 |
| 2. 옥구군(10) | 미면, 구읍면,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나포면, 성산면 | |
| 3. 익산군(18) | 익산면, 오산면, 춘포면, 삼기면, 팔봉면 , 금마면, 왕궁면, 북일면 , 용안면, 함라면, 황등면, 옹포면, 성당면, 함열면, 여산면, 낭산면, 황화면 , 망성면 | 익산시 |
| 4. 전주군(20) | 전주면, 초포면 , 용진면, 상관면, 난전면 , 우립면 , 이동면 , 조촌면 , 봉동면, 이서면, 삼례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삼기면 , 비봉면, 운선면 , 화산면, 동상면, 운동하면 | 전주시 |
| 5. 김제군(17) | 김제면, 월촌면 , 죽산면, 백산면, 용지면, 백구면, 부량면, 만경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금구면, 하리면 , 쌍차면 , 수류면 , 초치면 | 김제시 |
| 6. 고창군(17) | 고창면, 고수면, 오산면 , 아산면, 무장면, 석곡면 ,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벽사면 , 부안면 | 고창군 |
| 7. 정읍군(19) | 태인면, 용동면, 산외면, 감곡면, 칠보면, 산내면, 보림면 , 용북면 , 고부면, 소성면, 영원면, 이평면, 덕천면, 우순면 , 정토면 , 정읍면, 내장면 , 입암면, 북면 | 정읍시 |
| 8. 금산군(10) | 금산면,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남일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 충남 금산군 |
| 9. 진안군(11) | 진안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용담면, 주천면, 동향면, 안천면, 정천면 | 진안군 |
| 10. 남원군(19) | 남원면, 이백면, 주천면, 흑송면 , 주생면, 대산면, 대강면, 사매면, 덕곡면, 보절면, 왕치면 , 금지면, 산동면, 수지면, 두동면 , 운봉면, 아영면, 산내면, 동면 | 남원시 |
| 11. 부안군(10) | 부녕면 ,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보안면, 산내면, 백산면, 상서면, 하서면, 건선면 | 부안군 |
| 12. 임실군(12) | 임실면, 청용면,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둔남면 , 신덕면, 삼계면, 오천면 ,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 임실군 |
| 13. 순창군(12) | 순창면, 인계면, 동계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쌍치면, 복흥면, 적성면, 유등면, 구암면 , 무림면 | 순창군 |
| 14. 무주군(6) | 무주면,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 무주군 |
| 15. 장수군(7) | 장수면, 산서면, 번암면, 천천면, 계내면 , 계남면, 계북면 | 장수군 |

* 굵은 부분(면명)은 통폐합되거나, 지역명이 변경된 경우임.
출처 :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洞名稱一覽.

표 4. 전주군 20개 면(1914년)의 행정구역 변화

| 1914년 이전 행정구역(32개 면) | | 1914년 행정구역 (20개 면) | 1935년 행정구역 | 1957년 행정구역 | 2000년 행정구역 |
|-------------------------|-------------------------------|--------------------|------------|--------------------------|--------------------|
| 전주군 (21) | 부동면, 부서면, 부남면, 부북면 (부북면), 이동면 | 전주면 이동면 | 전주부 | | 전주시 (1987년 조촌면 통합) |
| | 난전면 | 난전면 | 완주군 | 우전면 | |
| | 우림면 | 우림면 | | 초포면 | |
| | 회포면, 초곡면 | 초포면 | | 조촌면 | |
| | 이북면, (이동면), 조촌면 | 조촌면 | | 용진면 | |
| | 용진면 (부남면), 상관면 | 상관면 | | 상관면 | |
| | 이서면, 이남면 | 이서면 | | 이서면 | 완주군 (13개면) |
| | 창덕면, 우서면 | 삼례면 | 삼례면 | | |
| | 우동면, 봉상면 | 봉동면 | 봉동면 | | |
| | 구이면 | 구이면 | 구이면 | | |
| | 소양면 | 소양면 | 소양면 | | |
| | 고산면, 남면 | 고산면 | 고산면 | 완주군 (13개면) | |
| 동하면, 북하면 (북하면), 북상면, 서면 | 삼기면 비봉면 | 비봉면 | | | |
| 운동상면 | 운선면 | 운주면 | | | |
| 운동하면 | 운동하면 | 화산면 | | | |
| 운상면, 운서하면 | 화산면 | 동상면 | | | |
| 동상면 | 동상면 | 동상면 | | 완주군 (1984년 경천면 분리, 13개면) | |

* 1914년 이전 행정구역에서 ()는 일부 지역임을 나타냄.

는 정(町)과 정목(丁目)이 총 173개였다. 1914년 전주군 지역의 20개 면 중 13개는 원래 전주군 지역 이었고, 7개는 고산군 지역이었다.

1935년 전주부와 완주군의 분리에 의해서 전주군의 20개면 중 전주면과 이동면 지역이 전주부가 되고 나머지 18개 면은 완주군이 되었다. 이 후 전

주시의 확장에 따라서 완주군의 3개 면이 전주시에 완전히 편입되어(우전면, 초포면, 조촌면), 현재의 전주시는 1914년 전주군에 속해있던 20개면 중 6개면 지역이다.

1935년 전주부와 완주군의 분리 이후, 1940년 완주군 조촌면의 일부 지역이 전주시로 편입되어 덕

표 5. 전주시의 행정구역 변화

| 연도별 | 행정구역의 변화 |
|-------|--|
| 1914년 | 전주군 전주면 |
| 1931년 | 전주읍 승격 |
| 1935년 | 전주부, 완주군 분리 |
| 1957년 | 초포면(전미동, 호성동), 우전면(삼천동, 효자동, 평화동)의 전주시 편입, 조촌면 일부(송천동, 팔복동), 용진면과 상관면 일부 전주 편입 |
| 1987년 | 조촌면의 전주시 편입(조촌동, 동산동) |
| 1994년 | 김제시 일부 지역 전주시(조촌동) 편입 |
| 1996년 | 중앙동(중앙동 + 다가동+ 고사동), 풍남동(경원동+ 풍남동+ 전동), 태평동(태평 1동+ 태평 2동)으로 통합, 송천동은 1동과 2동으로 분동 |
| 1998년 | 동서학동(동서학동+ 남고동), 송천 2동(전미동+ 송천 2동)으로 통합 |
| 2005년 | 진북동(진북1동+ 진북2동), 노송동(남노송동+ 중노1동+ 중노2동+ 서노송동), 풍남동(풍남동+ 교동), 완산동(동완산동+ 서완산동), 중앙동(중앙동+ 태평동) |

진동이 탄생했다. 1957년에는 완주군의 우전면이 통합되어 삼천동·효자동·평화동이 탄생했으며, 초포면이 통합되어 전미동과 호성동이 탄생했고, 조촌면의 일부 지역 편입으로 송천동과 팔복동이 탄생했다. 1987년에는 조촌면이 완전 통합되어 조촌동과 동산동이 탄생했다. 현재의 전주시는 1996년 이후 과거 도심부였던 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하여 통폐합되어, 덕진구와 완산구의 2개구와 33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5).

3. 조촌면의 행정구역 변화

조촌면은 1914년 기존의 조촌면 지역에 전주군 이북면 지역과 전주군 이동면의 일부 지역을 통합하여 13개리로 구성된 전주군의 20개 면 중의 하나로 재조정 되었다(표 6). 1935년 전주부와 완주

군의 분리로 완주군 지역에 속했으나, 전주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전주부의 확장에 따라 1940년 상가리가 전주시 덕진동으로 편입되고, 1957년 시천리와 오송리(송천동), 동곡리(팔복동)가 전주시에 편입되었다. 그 결과 1957년에는 13개리 중 4개리가 전주시에 편입되어 9개리만 남게 되었다. 1983년에는 주변지역에서 2개리가 조촌면에 편입되어 11개리가 되었다(원동리, 도덕리). 그리고 1985년에는 조촌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7년에는 조촌동(6개리)과 동산동(5개리)로 분리되어 전주시로 완전 편입되었다.

결국 1914년 조촌면의 13개리는 전주시의 시가지 확장에 따라 전주시에 편입되어 6개 동지역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으나, '조촌'이라는 면명칭은 지금도 조촌동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주시로 편입된 이후 1994년 김제 읍지면 남정리, 백구면의 강흥리,

표 6. 조촌면의 시기별 행정구역 변화

| 연도별 | 행정구역 변화 |
|-------|---|
| 1914년 | 이북면 + 이동면(일부) + 조촌면으로 구성(13개리) |
| 1940년 | 상가리 전주 편입(12개리) |
| 1957년 | 시천리(송천동), 오송리(송천동), 동곡리(팔복동) 전주 편입(9개리) |
| 1983년 | 완주군 이서면 원동리(완주군 이서면), 도덕리(김제군 백구면)의 편입 (11개리) |
| 1985년 | 조촌읍으로 승격 |
| 1987년 | 전주시 편입과 함께 조촌동(6개리)과 동산동(5개리)으로 분리 |
| 1994년 | 김제군 남정리(용지면), 강흥리, 도도리(백구면)를 조촌동으로 편입 |

표 7. 조촌면 지역의 변화

| 1914년 이전 | 1914년 (전주시 편입연도) | 1957년 | 2000년 | | |
|----------|------------------|-------|-------|---------|-----|
| 전주군 이북면 | 조촌면 | 조촌면 | 조촌동 | | |
| | | | | 전주군 이동면 | 동산동 |
| | | | | | |
| 팔복동 | 팔복동 | | | | |
| 송천동 | 송천 2동 송천 1동 | | | | |
| | | 덕진동 | 덕진동 | | |

* 1983년(원동리, 도덕리), 1994년(남정리, 강흥리, 도도리) 편입.

도토리 등 3개리가 편입되어, 조촌동의 지역규모는 다시 확장되었다(표 7). 이와 같이 조촌동은 전주시로 통합된 이후에도 전주시 행정구역 확장의 최전선 지역이 되고 있다.

4. 조촌면의 지역구조와 정체성 변화

1) 지리적 범위의 변화

1914년 조촌면 지역은 전주부성의 서북쪽에 위치하는 면으로서, 지형적으로 서쪽과 남쪽은 구릉성 산지이고, 동부는 전주천 유역의 충적지, 북쪽은 만경강 유역의 충적지로 이루어졌다. 행정구역은 동쪽은 전주면, 북쪽은 만경강을 사이로 삼례면, 남쪽은 이동면 및 이서면, 서쪽은 김제군 백구면과 경계를 이룬다. 중심지는 구릉상에 위치하는 동산리이다.

1914년 이전에는 7개의 리 지역이었으나, 이 중 4개리(반월리, 고당리, 동곡리, 동산리)는 구릉상에 위치하는 마을이고, 나머지 3개 리(시천리, 오송리, 상가리)는 동쪽으로 전주천을 넘어서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서북쪽인 전주군 이북면의 3개리(화전리, 성덕리, 용정리)와 남쪽인 전주군 이동면의 3개리(여의리, 장동리, 만성리)가 편입되어, 총 13개리로 확대되었다(그림 1).

전주군의 20개면 중의 하나였던 조촌면은 1935

년 전주부와 완주군이 분리되면서 완주군에 소속되었다. 1940년 전주천을 경계로 동쪽 지역인 상가리, 1957년에는 전주천의 동쪽 지역인 시천리와 오송리, 동곡리가 전주시로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조촌면은 전주시역의 확장으로 전주시와 인접해 있는 동쪽의 4개리가 전주시로 통합되었으나, 다른 면지역과는 달리 전주시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고, 나머지 9개리는 조촌면으로 존속했다.

1983년에는 서쪽에 있는 김제군 백구면의 도덕리와 완주군 이서면의 원동리가 조촌면으로 편입되어 조촌면은 9개리에서 11개리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1987년에 동쪽의 동산동(5개리 지역)과 서쪽의 조촌동(6개리 지역)으로 분리되어 전주시에 완전 편입되었다. 이후 1994년에는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와 백구면의 강흥리 및 도도리가 조촌동으로 편입되어 조촌동의 관할 지역은 총 9개리가 되었다(표 8).

현재도 지명으로 남아있는 조촌동 지역은 1914년 이전부터 조촌면이었던 지역 7개리 중에서 1개리(반월리)만이 그대로 유지되고, 1914년에 조촌면에 편입된 지역인 이북면 지역, 1983년과 1994년에 완주군과 김제군에서 편입된 지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조촌동은 행정구역명으로서 지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행정구역명이 의미하는 지리적 범위는 1914년과 비교해서 반월리 1개리를 제외하고 완전히 다른 지역을 의미한다(그림 2).

조촌이라는 지명은 100여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지명이 의미하는 지역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결국 지명과 그 지명이 의미하는 지역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지명 특히 면명과 같이 인위적으로 불리워지는 지명의 정체성은 자연마을 지명의 정체성과는 다를 수 있다.

2) 지명으로서 면명의 변화 유형과 정체성

지명 중에서 특히 면명은 인위적이며 변화가 가장 심한 지명이다. 자연 마을명이 그 지역의 지형적 특성이나 위치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이름이 붙여진데 비해서, 리(里) 단위에서는 대부분 그 지역 중심마을의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면명은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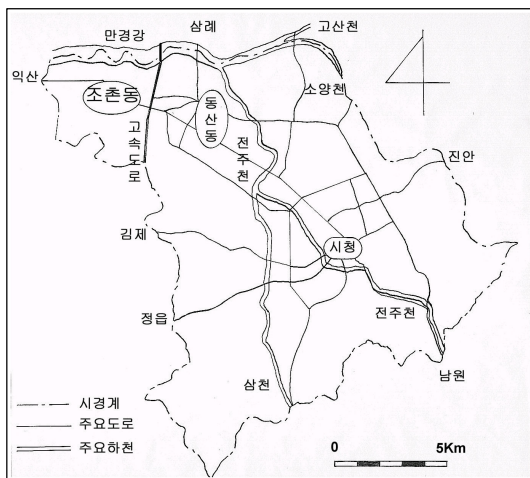


그림 1. 전주시 경계 내에서 조촌면의 위치 (조촌동과 동산동 지역, 2000년 현재)

표 8. 조촌면의 관할 지역 변화

| 시기별 | 관할 지역 |
|--------------|---|
| 1. 1914년 이전 | 교량리, 동산리, 반월리, 동곡리, 시천리, 오송리, 상가리(7리) |
| 2. 1914년(확대) | 교량리, 동산리, 반월리, 동곡리, 시천리, 오송리, 상가리(조촌면) 화전리, 성덕리, 용정리(이북면), 여의리, 장동리, 만성리(이동면)(13리) |
| 3. 1940년(축소) | 교량리, 동산리, 반월리, 동곡리, 시천리, 오송리, 화전리, 성덕리, 용정리, 여의리, 장동리, 만성리(12리) |
| 4. 1957년(축소) | 교량리, 동산리, 반월리, 화전리, 성덕리, 용정리, 여의리, 장동리, 만성리(9리) |
| 5. 1983년(확대) | 교량리, 동산리, 반월리, 화전리, 성덕리, 용정리, 여의리, 장동리, 만성리, 원동리, 도덕리(11리) |
| 6. 1987년(축소) | 반월리, 화전리, 성덕리, 용정리, 원동리, 도덕리(6리) |
| 7. 1994년(확대) | 반월리, 화전리, 성덕리, 용정리(이북면), 원동리(이서면), 도덕리(백구면), 남정리, 강흥리, 도도리(백구면)(9리) |

* 굵은 지명은 1914년 이전부터 조촌면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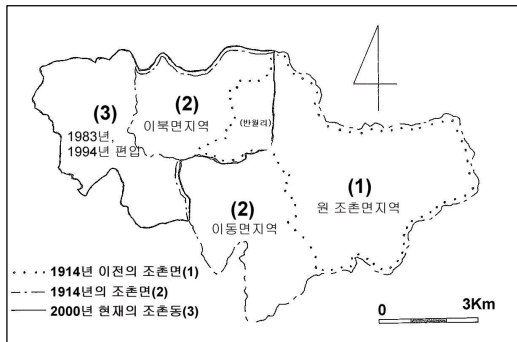


그림 2. 조촌면 지역의 시기별 행정구역 변화

지역명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 마을명이나 리명에 비해서 생명력이 길지 못하다.

군 단위의 면(面)과 시 단위의 동(洞)은 같은 수준의 행정 단위이지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명은 면명에 비해서 해당 지역의 자연 마을명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오송리 + 시천리 = 송천

동, 중산리 + 화산리 = 중화산동 등). 그에 비하여 해당 지역의 중심 마을명이 면명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면과 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다르고, 분동 등의 변화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14년 4월 1일 지방관제의 개정으로 군의 통폐합과 함께 면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전국적으로는 4,322개면이 2,521개면으로 조정되었다(약 58.3%로 축소). 당시 전주군 지역은 32개면이 20개면으로 조정되었다(약 62.5%로 축소). 이 당시 이 지역에서 사라진 면명은 전주군 관내가 12개, 고산군 관내가 9개로 총 21개의 면명이 사라졌다(표 9). 또한 1914년의 20개 면명 중 기준에 존재 하던 면명은 13개이고, 나머지 7개는 새로 만들어진 면명이다. 이후 1935년에 다시 한번 면명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동면이 전주부로 통합되어 면명이 사라지고, 완주군에서 18개면이 15개로 축소

표 9. 1914년 이전과 이후에 소멸된 면지명

| 군별 | 1914년에 소멸된 면지명(21개) | 1914년 이후 소멸된 면지명(7개) |
|-----|--|-----------------------|
| 전주군 | 이북면, 이남면, 회포면, 초곡면, 봉상면, 우동면, 우서면, 창덕면, 부동면, 부서면, 부남면, 부북면(12) | 이동면, 난전면, 우림면, 초포면(4) |
| 고산군 | 동하면, 북하면, 북상면, 군내면, 남면, 서면, 운동상면, 운상면, 운서하면(9) | 삼기면, 운선면, 운동하면(3) |

표 10. 초포면 지역의 변화

| 1914년 이전 | 1914년 | 1957년 | 2005년 현재 |
|----------|---------------|--------------|----------|
| 전주군 회포면 | 1. 하 리 | 삼례읍 | 삼례읍 |
| | 2. 미산리 | 전미동 | 송천 2동 |
| | 3. 전당리 | | |
| 전주군 초곡면 | 4. 상운리 | 용진면 | 용진면 |
| | 5. 송전리 | 호성동 | 호성동 |
| | 6. 봉암리 | | |
| | 7. 신성리 | | |
| | 8. 우방리 | 우아동(우방리+아중리) | 우아 1동 |

되었다. 이 때의 면명은 기존 면명의 변형 수준에서 이루어졌다(우전면=난전면+ 우림면, 고산면=고산면+ 삼기면, 운주면=운선면+ 운동하면).

면지명이 소멸되는 경우는 완전히 사라지는 형과 한 글자씩 취함으로써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완전히 사라지는 형은 초포면, 난전면, 우림면, 이동면을 들 수 있는데, 모두 전주시에 편입되거나, 통폐합 된 곳이다. 특히 초포면의 경우 1914년 행정구역 통합에 의해 한글자씩 취하여 면명이 만들어졌으나, 1957년 전주시로의 통합에 의해서 지금은 지명으로서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표 10). 글자 한자씩 흔적이 남는 경우는, 봉동면(봉상면 + 우동면)이 있고, 한 글자만 남는 경우는 운주면(운선면)이 있다. 특히 사라진 면명은 동서남북의 방향명이 붙은 지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992년 남원군 동면이 인월면으로, 장수군 계내면이 장계면으로, 임실군 둔남면이 오수면으로 변경된 것은 면명이 모두 그 지역의 중심 마을명으로 바뀐 경우이다. 또한 면명이 마을 지명을 바꾼 사례로는, 임실군 관촌면 관촌마을의 경우는 1935년에 오천면이 관촌면으로 바뀌면서 면 소재지가 되고, 마을이름도 선천리에서 관촌리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지명으로서 면명은 인위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가 많지만, 완전하게 사라지는 경우와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촌'은 다른 면명과는 달리 그 지명이 의미하는 지역을 달리하면서도, 지명으로서 계속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과거 면명으로 이름 지어진 조촌 초등학교가 동산동에 위치하는 사례와 같이, 지명은 살아있지만 그 지명이 의미하는 지리적 범

위는 변화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지명으로써 면명이 자연조건에 기반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3) 면단위 행정구역에서의 지역 변화 요인

조촌면이라는 면단위 행정구역의 지역 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은, 전주시의 지역확장에 따른 편입과 통합에 의한 지리적 범위의 변화, 전주-군산 간 신작로(1908년)와 철도역(1914년) 등 교통조건의 변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한 대농장(동산농장)의 관리소 입지와 면사무소의 입지 등 행정기능의 집적 등의 3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1) 전주시의 지역 확장

조촌면의 지리적 범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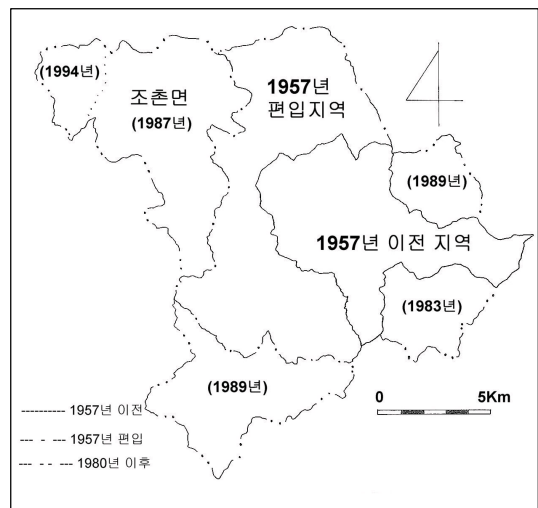


그림 3. 전주시의 지역 확장과 조촌면

준 것은 인접해 있는 전주시의 시역 확장이다(그림 3). 1940년과 1957년 전주시의 시역 확장으로 조촌면 관내 13개리 중 4개리가 전주시에 편입되어 9개리로 축소되었다. 1987년 전주시로 완전 편입되면서 동산동(5개리)과 조촌동(6개리)으로 분리되어 조촌이라는 지명이 의미하는 지역규모가 6개리로 축소되었지만, 1994년 주변의 3개리를 조촌동으로 편입하여 9개리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조촌이라는 지명이 의미하는 지역의 위치는 변화했지만(서쪽으로 이동), 지역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표 11, 12).

표 11. 조촌면 지역의 비중

| 구 분 | 면적(Km ²) | 인구(명) |
|--------|----------------------|---------------|
| 전주시 전체 | 206.22 | 626,069 |
| 조촌동 | 24.22 (11.7%) | 11,140 (1.8%) |
| 동산동 | 17.05 (8.3%) | 17,222 (2.8%) |

자료: 전주시, 2003, 통계연보(2002년 12월 31일 기준).

(2) 교통 조건의 변화

조선시대에 조촌면 지역은 전주성의 근교에 위치하며, 당시 주요 교통로인 전주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는 전주부성의 남문 ⇒ 서문 ⇒ 숲정이 ⇒ 떡전거리 ⇒ 상가리 ⇒ 전주천(추천, 여울, 舊酒里) ⇒ 신복리 ⇒ 감수리 ⇒ 평리(주엽쟁이, 酒葉亭) ⇒ 대천(만경강) ⇒ 삼례의 길 이 주요 도로였으며,³⁾ 이 길은 조촌면을 관통하고 있다(그림 4). 이 당시 조촌면의 중심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창(社倉)은 신감리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⁴⁾

그러나 1908년 전주 - 군산간 신작로가 개설되고, 조촌면 반월리에 일본인 농장(동산농장)이 개

설되면서, 전주성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이 전주부성의 북문 ⇒ 상가리 ⇒ 전주천 ⇒ 동산촌 ⇒ 대천(만경강) ⇒ 삼례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신작로의 개설로 전주에서 삼례로 가는 주요 도로가 동산촌(동산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하게 되고, 동산촌은 전주 - 이리 - 군산 노선과 전주 - 삼례 - 한양으로 통하는 삼거리로서 이 지역의 교통 중심지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삼례(완주군 삼례읍)가 전라도의 동남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 연결의 교통 중심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동산촌이 전주 - 군산, 전주 -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가 된 것이다. 이와 함께 1914년에 전주 - 이리간 경편철도의 부설과 동산역의 설치로, 동산촌은 이 지역에서 도로교통뿐 아니라 철도교통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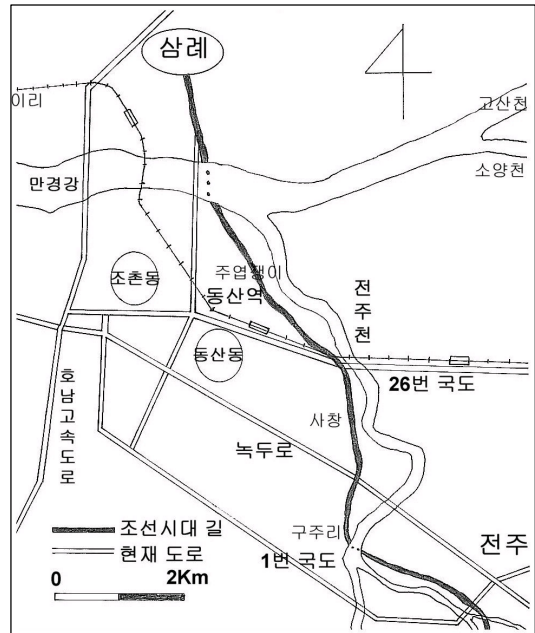


그림 4. 조촌면을 통과하는 주요 교통로의 변화

표 12. 조촌면의 인구와 면적 변화

| 구분 | 1957년 이전 | 1983 | 1993 | 2003 |
|----------------------|----------|--------|---|---|
| 인구(명) | - | 23,384 | 26,236 | 28,362 |
| 면적(Km ²) | 44.94 | 29.17 | 34.98 (조촌동 : 16.02) (동산동 : 18.96) | 41.27 (조촌동 : 24.22) (동산동 : 17.05) |

자료: 완주군(1957, 1983), 전주시(1993, 2003), 통계연보(1987년 전주시 편입).

주) 1987년 이후에는 동산동과 조촌동을 조촌면 지역으로 봄.

심지가 되었다.

(3) 지역 중심지 형성

1914년 이전에 조촌면에는 뚜렷한 지역 중심지가 없었다. 다만 신감리 부근에 사창이 있었고, 전주성과 삼례를 잇는 도로변에 구주리와 평리(주업쟁이)와 같은 주막촌이 있었으며, 동곡리에는 비석거리와 팔과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전주지도, 1872), 지금의 중심지나 교통망의 구조와는 달랐다.

뚜렷한 중심지가 형성되지 않았던 조촌면에서 특정 지역인 동산리(또는 동산촌)가 지역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일본인 대농장의 입지와 지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한 군산항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 시설의 구축과 관계가 깊다. 미쓰비시(三菱) 재벌의 이와사끼(岩崎)는 1907년부터 1909년까지 경기도의 수원, 오산, 인천근교, 전라북도의 조촌면 반월리, 전라남도의 영산포 등지에 농토를 매입하여 동산농장을 설립하였다. 이와사끼는 반월리의 농토 2,000 정보를 점유하고, 주민 대부분을 소작인으로 지배하여, 이 지역은 이와사끼의 사영지가 되었다. 원래 이 지역은 반월(半月) 또는 ‘쫄그래미(또는 쪽구름이)’라는 지명으로 불렸는데(완주군, 1982, 290), 이와사끼는 자신의 아호를 따서 동산(東山)이라는 새로운 지명으로 개칭했다(장명수, 1994, 211). 이와사끼는 동산촌에 저택, 사설 우체국, 사설 학교, 사설 경찰서 및 신사까지 설립하였으며, 사실상 동산촌은 총독부의 지방행정권을 벗어나 있었다(고승제, 1977, 330). 동산농사주식회사 전북 출장소는 직원이 13명, 사음(마름)이 51명이었으며, 소작인이 1,091명이 있었다(완주군지, 1996, 681). 동산농장과 또 다른 농장 사무소(筑紫농장, 직원 2명, 사음 15명, 소작인 558명)가 개설되면서 동산촌은 이 지역 농장 관리의 중심지가 되었다.

일본인 대농장의 입지와 거의 동시에 기존의 중심도로였던 전주 - 삼례간 기존 도로와는 별도로, 이 당시 일본인의 주요 거주지이면서 대외 항구였던 군산과 전주를 연결하는 신작로가 1908년에 건설되면서, 조촌면 동산촌은 이 지역의 교통 결절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전주 - 삼례간 도로를 대체하여, 동산리를 중심으로 전주 - 군산, 전주 - 삼례 - 한양으로 이어지는 삼거리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1914년에는 전주와 이리를 잇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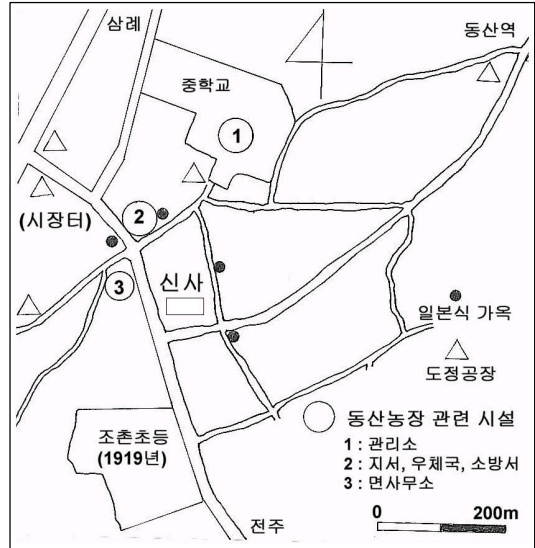


그림 5. 동산촌의 주요 기관 위치

표 13. 1938년 전주부 관내의 정기시장

| 채래시장 | 개설일자 | 거래액(원) |
|-----------|--------------|---------------|
| 전주 | 2, 7일 | 949,423 |
| 삼례 | 3. 8일 | 175,580 |
| 동산 | 1, 6일 | 10,650 |
| 고산 | 4, 9일 | 258,288 |
| 봉동 | 5, 10일 | 11,660 |

출처: 文定昌, 1941, 朝鮮의市場, 日本評論社, 255(완주군지, 1996, 671. 재인용).

경편철도의 동산역이 만들어짐으로써, 동산촌은 전주와 외부 지역(군산 및 삼례를 통한 한양)을 잇는 교통 결절지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일본인에 의한 대농장과 교통조건상의 이점에 힘입어, 1917년에는 면사무소가 이 지역에 설치됨으로써, 동산리는 조촌면의 행정 및 교통 중심지가 되었다(그림 5). 또한 교통조건의 편리성과 중심성의 확보로 동산촌에는 동산(1, 6) - 전주(2, 7) - 삼례(3, 8) - 고산(4, 9) - 봉동(5, 10)의 5일장이 개설되어, 이 지역 상업 중심지의 역할까지 부가되었다(표 13).

이와 같이 동산촌은 뚜렷한 중심지가 없었던 조촌면 지역에서 전주 - 군산 및 전주 - 한양을 잇는 도로교통과 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정기시장이 서는 상업 중심지, 면사무소와 농장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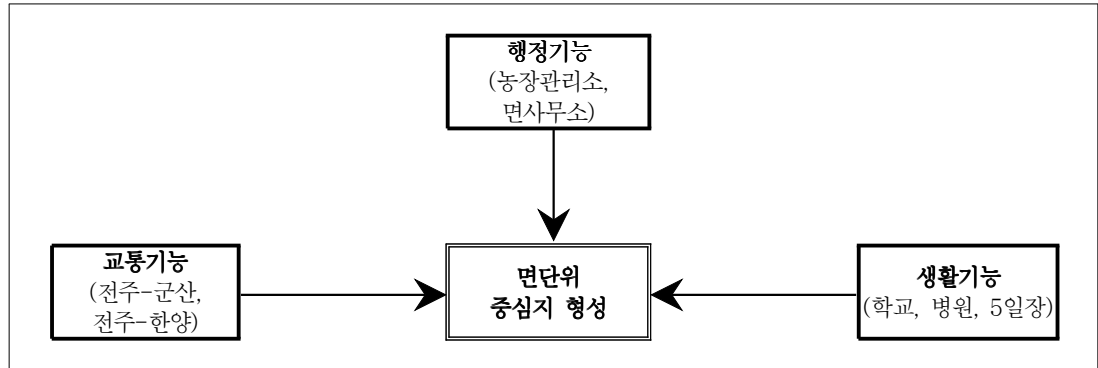


그림 6. 조촌면의 중심지 형성 요인

등이 입지하는 행정 중심지, 병원과 학교가 위치하는 생활 중심지로 발전하였다(그림 6). 이러한 기능들은 상호 흡인력을 가지면서, 특정 지역에 집적되어 면단위 행정구역내에서 새로운 지역 중심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5. 결론

행정구역으로서 ‘면’은 인위적인 행정구역 중 최하층에 위치하면서, 자연적인 마을 단위와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다. 시와 군단위의 행정구역명이 역사성이나 인식 측면에서 훨씬 광범위하지만, 면단위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한정되는 인식규모가 매우 적은 지리적 단위(범위)이며, 행정구역명이나 존속여부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행정단위이다. 면의 지역 중심지가 만들어진 것은 1917년 면사무소의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 지역에 위치했던 하나의 ‘면’인 조촌면을 사례로 지리적 범위 변화, 지명으로써 면명의 변화 유형과 의미하는 지리적 범위와 관계된 정체성, 면단위 행정구역의 중심지 형성 등을 중심으로 면단위 행정구역에서의 지역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촌면은 뚜렷한 중심지가 없던 지역에서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는 요인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지명으로써 면명이 의미하는 지리적 범위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명이 유지되는 의미있는 사례 지역이다.

조촌면의 지역 변화를 가져오게 된 주요 요인은, 첫째 전주시와 근접한 관계로 전주시의 팽창에 따른 편입 및 통합이 면의 지리적 범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촌면은 1940년 이후 전주시로의 편입이 부분적으로 계속되어 오다가, 결국 1987년에는 전주시에 완전히 통합되었다. 둘째, 현재에도 조촌이라는 지명은 조촌동으로 남아 있으나, 조촌이라는 지명이 의미하는 지리적인 범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지명과 의미하는 지역의 지리적 범위가 유동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는 면명이 인위적인 지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조촌면의 면 중심지가 형성되었다. 조촌면의 중심지로 부상한 동산촌(리)은 1908년 전주 - 군산간 신작로 개설, 1909년 동산농장의 개설, 1914년 전주 - 이리 간 경편철도와 동산역 설치, 1917년 면사무소가 설치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촌면의 교통·행정·상업의 중심지로 굳어지게 되었다.

면단위 행정구역의 지역규모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위적인 지역규모이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먼저 대하게 되는 공식적인 지역 단위이다. 또한 상향식 지역 이해의 출발점이며, 가장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한 지역규모이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연구 대상으로서 의미 있는 지역규모이다.

註

- 1) 1911년에는 면사무소의 건물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면장집의 방 1칸을 이용하고, 간판을 붙이는 정도였다. 면사무소가 갖추어진 것은 1917년 이후이다(교승제, 1977, 321).
- 2) 1895년 행정구역에서 진산군과 금산군은 공주부에 속함.
- 3) 1872년 전주지도(규장각 소장)와 1911년 1 : 50,000

지형도를 참고로 추정함.

- 4) 전주에서 삼례를 거쳐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전주부사(1943, 93)에서 추정한 노선이다(전주 우체국 ⇒ 서문 ⇒ 숲정이 ⇒ 모래내 ⇒ 가련산 서쪽 ⇒ 추천(여울) ⇒ 구주리 ⇒ 동곡리 ⇒ 방조리 ⇒ 동산리 ⇒ 삼례). 그러나 이 노선은 조선시대의 길이라기보다는 1900년대 이후 동산리가 부각되면서 주로 이용되었던 노선으로 보인다.

文獻

고승제, 1977, 한국촌락사회사연구, 일지사.
 김보현·김용재, 1983,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김운태, 1998,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김종혁, 2003,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변동과 복원”, 문화역사지리, 15(2), 97-124.
 내무부, 1979, 지방행정구역 발달사.
 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한국지방행정사.
 대한행정학회, 1949,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도도로키 히로시, 2002, 삼남대로 답사기, 성지문화사.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經國大典.
 소순열·원용찬, 2003,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완주군, 1982, 전통의 고장 완주.
 완주군, 1996, 완주군지.
 완주군, 1957, 1983, 통계연보.
 유재영, 1982, 전래지명의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이수건,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이준희, 1990,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연구, 일지사.
 임석희, 1995, 공간조직의 관점에서 본 한국 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향,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전라북도, 1989, 전라북도지(1권).
 전라북도, 1995, 전라북도 행정구역요람.
 전주문화원, 2001,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
 전주시, 1993, 2003, 통계연보.
 전주역사박물관, 2004,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정시채, 1986, 한국행정제도사, 법문사.
 조선총독부 내무국, 1929,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조성욱, 2005, “지리교육에서 지역규모 인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139-149.
 최병운, 1989, “전북의 연혁”, 전라문화논총, 3, 9-34.
 최창호, 1981, 지방행정구역론, 법문사.
 충청북도, 1992, 지방행정조직제도사.
 행정자치부, 2001, 통계연보.
 文定昌, 1941, 朝鮮の市場, 日本評論社.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洞名稱一覽, 한국지리 풍속지총서(189).
 全州府, 1943, 全州府史.
 전주지도, 1872, 규장각 소장.

(접수 : 2005. 9. 21, 채택 : 2006. 1. 8)